

현장시선



허영진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동조합 금융의 변화

서 해결하는 홈이코노미(Home+ Economy)가 정착하고 있다. 금융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금융에서도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오프라인과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채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digilog)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은 구성원(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민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 거래를 의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 위주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노년층 중심의 대면 거래와 청년과 청년층 중심의 비대면 맞춤형 거래 방식의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 금융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의 가장 큰 단점은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인한 생

산성이 낮다는 점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수신업무 인력이 감소하고 유효인력을 여신 등 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여·수신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수익 증대로 이어져 구성원(조합원)과 도민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배당금 지급, 사회공헌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셋째, 점포운영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은 생산성만을 고려하여 점포운영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점포 운영 전략에는 변화가 있다.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현점포의 수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여신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창구 인력을 줄이고 여신 인력을 늘리는 여신 업무 중심의 점포, 시장 규모를 고려한 미니점포, 비대면 거래 중심의 점포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형태의 점

포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여신마케팅과 여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거래의 보편화로 수신 성장이 용이해지는 반면 정부당국의 여신 규제로 여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이런 변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주인은 구성원(조합원)이기에 이윤극대화보다 구성원(조합원)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금융으로서의 역할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워드코로나 검토와 백신 접종률 증가를 멀리 않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희망과 함께 협동조합 금융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과 상생을 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도민들의 얼굴은 어둡고 삶은 황폐화돼 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택트 문화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원격근무 플랫폼을 이용한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수업, 원격 의료진료, 온라인 흡소품, 언택트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반적인 소비·경제활동을 집에

사설

빠른 일상 회복, 추석연휴 방역에 달려있다

긴 추석 연휴가 17일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제주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귀성객까지 더해져 20만명 가량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렌터카 예약률은 연휴기간 8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반짝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도내 관광업계가 마냥 웃을 수도 없다. 현재 제주지역은 진정됐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평소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짝특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역에 대한 우

려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기간 수도권 관광객이 대거 제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럴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다. 지역감염이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를 가르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슬하게 겪었듯이 평상시에도 예기치 않은 지역감염이 급증할 때가 많았잖은가. 한물머 민족의 대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만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지면 제주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제주를 방문할 경우 출발 사흘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달리 권고한 것이 아니다. 자칫 방심하면 연휴기간에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추석 연휴를 잘 넘겨야 한다.

계속 터지는 아동학대, 왜 막지 못하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 등을 망라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를만큼 충격적이다. 학대 아동이나 부모들의 고통·분노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재발을 막도록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학대판정 건수가 지난 2017년 344건, 2018년 355건에서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의 예방대책에도 별무효과다. 올해도 최대 규모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이어 최근 다시 발생하며 지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규모상 최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아동 29명에 300여회 학대행위를 했고, 원장 교사 등 10명이 입건됐다. 지난 5~

7월 원아 11명을 100여차례 학대한 교사 1명도 다시 적발됐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많다. 서귀포시 상반기 신고 151건중 88건이 학대판정을 받았고, 이중 81%가 친부모다. 그간 출근 내세운 행정의 예방·보호 종합대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대사건의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교사가 저지른 사례도 있다. 제주 시내 시설개방과 운영 참여로 학대를 예방하는 열린 어린이집 참여율도 고작 22%에 불과하다. 행정 대책과 현장 실천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행정의 어린이집 실명 공개와 학대를 방조한 종사자 처벌 등 초강경 대책과 함께 예방대책으로 교육·점검 수시 반복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도청 국장이 '아동학대는 반인권적 범죄임을 도민들에 적극 알려 뿌리 뽑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발

뉴스-in

“홍 후보 발언, 제주와 사전 교감 없었다”

고영권 도민 공감대 형성 강조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달 “제주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하겠다”며 공약한 것에 대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16일 “홍 후보의 발언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언급. 고 예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의 발언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전에 얘기된 것이 있느냐”는 문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질의에 이같이 답변. 고 예정자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먼저 도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 이상민기자

로 부족한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 이와관련 아동우 시장은 “현안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지역주민과 현장소통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속도감 있고 슬기롭게 해결해 달라”고 주문. 이윤형기자
“추석연휴 이 책 어때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6일 도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며 추석연휴 읽을 만한 책으로 ‘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지음)’을 추천. 이 교육감은 “책은 선진국 조건 중의 하나로 ‘교육 변화’를 말하고 있다”며 “필자는 ‘선행·조기·사지선다 교육’은 의미없다. 스스로 질문하고 정의하고 적용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고 설명. 이어 “대한민국과 교육, 우리 삶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며 추천 이유를 소개. 오은지기자

시간이 현안 해결해주지 않아

○...제주시는 16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현안사업 2차 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 65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시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마당

코로나 위기 아동 ‘한시적 급식비’ 신청하세요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관심이 필요한 요즘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실직 등 갑자기 소득이 감소해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줬고, 서귀포는 총 2억3000만원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1200여명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금까지 1인당 급식비 지원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9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내년에는 7000원으로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시락 또는 부식으로 지원했던 급식 체계를 바꿔서 급식 카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 급식비 신청은 오는 9월 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되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없는지 살펴봐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인데 1989년 11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6개국 이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첫째 차별,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 넷째 어린이 의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가지 원칙 중 생존의 권리에는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아동이 흑사라도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충우(前 저청초·중학교 교장) 아버지 광산김공 성욱(향교훈장·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5일 07시 2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7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8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조수2리 가족선영
부인 이옥춘
아들 김충우 며느리 김정자
충의 고희선
딸 김순아 사위 고익수
순자
은영 박종철
※ 연락처: 김충우 010-6611-0187
김충의 010-4699-6814
김순자 010-5694-0420

부고
홍승호(前 제주그랜드호텔) 아버지 남양홍공 석중(前 제주상고 교감·향년 87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6일 01시 2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8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9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효순
아들 홍승호 며느리 고태영
승표 김경희
승완
딸 홍영애 사위 이동원
※ 연락처: 홍승호 010-5804-7506
홍승표 010-6678-7536
홍승완 010-6533-453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두형(향년 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9월 17일
부인 이신화
아들 양찬식 며느리 김행선
진식 이순례
현식 김은희
딸 양미자 사위 하덕규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함성인(1957. 11. 11. 생)
·최후주소: 제주시 용마로4길 7(용담삼동)
상기자는 2021년 6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9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3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삼우로11길 34, 3층(연동)
2021년 9월 1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구순필, 함지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곡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